철학논집 제43집 2015년 11월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43, Nov. 2015, pp. 259-284
10.17325/sgjp.2015.43..259

들뢰즈와 가따리의『천개의 고원』용어 분석론

-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으로서의 철학 -

윤지선(울산대)

【주제분류】 현대철학, 지질학, 수사학, 들뢰즈, 가따리, 지리철학
【주제어】 리좀, 지층화, 탈지층화, Plan de consistance, 수사적 은유, 지리철학
【요약문】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식물학, 지질학, 지리학과 같이 상이한 분야들을 넘나드는, 들뢰즈와 가따리의『천개의 고원』의 용어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일종의 수사적 은유의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수사적 은유를 통해 상이한 분야의 용어들이 갖는 의미의 층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창출시키는 그들의 전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가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층화, 탈지층화, 질료' 개념 분석을 통해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으로서의 철학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천개의 고원』의 <도덕의 지질학> 부분의 용어들을 기존의 지질학의 지구도식 구조와 면밀히 비교, 연계 분석함으로써 "plan de consistance"라는 용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점성의 판"이라는 확장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들뢰즈와 가따리는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리좀처럼 얽어내고 그로부터 개념들을 파생시키는 '이미지-개념' 기법을 통해 저술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법이 갖는 파격성은 이미지와 개념 사이에 그 어떠한 위계성이나 목적의식이 부재하며 상호 간에 끊임없는 촉발과 자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려있는 구조라고 고찰하는 바이다.

I. 들어가기

들뢰즈와 가따리의 사상이 공명해내고 있는 다채로운 용어들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식물학, 지질학, 지리학에 이르는 사유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리좀", "지층화(stratification)", "탈지층화", "기관 없는 신체"

투고일: 10월 30일, 심사완료일: 11월 15일, 게재확정일: 11월 18일

등과 같은 들뢰즈와 가따리의 용어들은[1] 기존의 철학적 논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타 분야의 용어들을 탄력적으로 차용해 오면서 그것들을 철학적 개념으로 변용·확장·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들뢰즈와 가따리는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에서 책의 유형을 "뿌리-책(livre-racine)"과 "리좀(rhizome)"[2]형으로 나누며 세계가 배열되고 이해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식물학 용어를 도입, 접목하여 보다 명료히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들뢰즈와 가따리의 시도를 일종의 수사적 은유로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전적 책의 유형과 식물학 용어인 "뿌리"형은 일자-귀착점으로서의 결론이든지 시원으로서의 뿌리이든지-를 중심축으로 구성된 위계적이며 유기적 체계로서의 세계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와 후자는 등치(A=B) 가능하게 되며 이것은 수사적 은유의 가동으로 볼 수 있다. 은유(métaphore)는 그리스어로는 μεταφορά (metaphorá)로서 어원적으로 transport, 즉 한 단어를 유사한 의미계열의 축을 지닌 다른 단어로 대체[3]하여 그것의 의미의 층위를 이동시키고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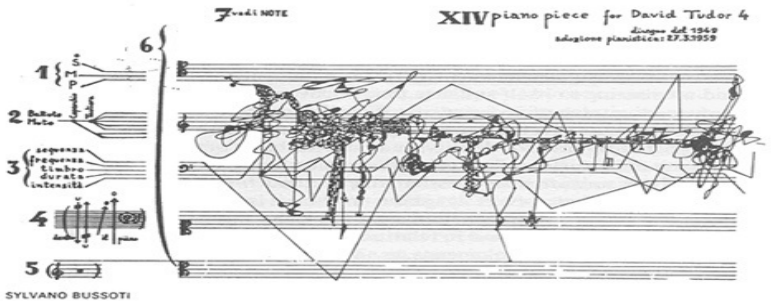
1)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들이 이미 들뢰즈 단독의 것이 아니라 들뢰즈와 가따리, 더불어 다수의 들뢰즈와 가따리 등에 의해 적혀진 것이라고 Mille plateaux의 서론(9)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다.

2) G. Deleuze/F.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1980, 11~20: "책의 첫 번째 유형은 뿌리-책(livre-racine)이다. 나무는 이미 세계의 이미지다. 또는 뿌리는 세계-나무의 이미지이다. 그것은 기표 중심적이며 주체의 산물인, 유기체적인 아름다운 내부성을 지닌 고전적인 책이다.(이런 것들이 책들의 지층이다)"; "[···] 이러한 체계를 리좀(rhizome)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땅 밑 줄기와 같은 리좀은 뿌리나 수염뿌리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구근이나 덩이줄기는 리좀들이다. 뿌리식물이나 수염뿌리식물들도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리좀 형태를 띨 수 있다. 식물학이 특성상 완전히 리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관건이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떼거리 형태로 보면 리좀이며 쥐들도 리좀이다. 쥐가 사는 굴도 서식처와 식량 조달처, 이동과 단절, 은신처의 모든 기능의 측면에서 리좀으로 볼 수 있다. 지면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갈라지는 확장에서 구근과 덩이줄기로의 응고에 이르기까지, 리좀은 그 자체로 매우 잡다한 모습을 띠고 있다."

3) P. Bacry, *Les Figures de style*, Paris, 1992, 288: «substitution, dans le cours d'une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용어들은 상이한 분야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사한 의미계열을 연상·공명시키는 단어들과 자유자재로 접속·연접을 거듭하며 새로운 개념을 역동적으로 산출해낸다.

1. Introduction: Rhizome



필자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을 중심으로 용어 분석을 시도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식물학적, 음악학적, 지질학적 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야 하는지 탐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로『천 개의 고원』의 서문을 여는 악보 분석을 통해 음악학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리좀-악상 개념과 역동적 분열방식으로서의 글쓰기를 다룰 것이다. 두 번째로 지층화, 탈지층화, 질료 개념 분석을 통해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으로서의 철학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세 번째로 plan de consistance를 조성의 판과 점성판으로 해석한 이유를 논증하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평적 미끄러짐인지 밝히겠다.

---

phrase, d'un mot à un autre mot situé sur le même axe paradigmatique – ces deux mots recouvrant des réalités qui présentent certaine similitude, ou qui sont données comme telles.»: ≪문장 안에서 한 단어가 같은 계열의 축에 놓여있는 다른 단어와 대체되는 것- 일련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실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단어들.≫

II. 리좀-악상: 역동적 분열방식으로서의 글쓰기

들뢰즈(Deleuze)와 가따리(Guattari)의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의 첫 장을 펼치면 위와 같은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현대 아방가르드 작곡가이자 예술가, 실바노 부소티(Bussotti, 1931~)의 악보는 『천개의 고원』의 포문을 열며 화음과 불협화음의 교직물(交織物)[4]로서의 저술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둘이서 『안티 오이디푸스』를 적었다. 우리 각자가 다수였기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과 가장 먼 것에 이르기까지 접근되는 모든 것은 다 이용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못알아보게 하려고 교묘한 가명들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름을 남겨뒀는가? 습관에 의해, 단지 습관적으로. 바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을 행동하고 느끼고 사유하게끔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5]

들뢰즈와 가따리는 기존의 2인 공저체제의 구도에서 벗어나 저술행위라는 역동적 작업이 갖는 복수성과 더불어 그것의 분열성을 지적하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어느 파트가 누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변별 불가능해진 지점에서 들뢰즈와 가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작품에 남기는 작가의 서명란 자체가 가짜이름으로 채워져 있음을 시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된 다수들의 실질적 가동방식을 드러내는 대신, 1+1이라는 고정되고 관습적인

---

4)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섞어서 짜는 일. 또는 그 직물.

5) 필자의 한국어 번역.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1980, 9: “Nous avons écrit l’Anti-Œdipe à deux. Comme chacun de nous était plusieurs, ça faisait déjà beaucoup de monde. Ici nous avons utilisé tout ce qui nous approchait, le plus proche et le plus lointain. Nous avons distribué d'habiles pseudonymes, pour rendre méconnaissable. Pourquoi avons-nous gardé nos noms? Par habitude, uniquement par habitude. Pour nous rendre méconnaissables à notre tour. Pour rendre imperceptible, non pas nous-mêmes, mais ce qui nous fait agir, éprouver ou penser.”

두 저자의 가명을 덧씌움으로써 마치 기존의 저자의 위상을 보존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열된 다수들은 공간학적으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에 저술행위라는 모험의 감행을 통해 자신의 가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장 근접한 곳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역량을 분출시킨다.

필자는 저술행위라는 역동적 분열방식과 화음과 불협화음으로 어지럽게 이루어진 부소티의 악상을 연결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의 악보에는 음표와 하모니[6], 악상기호들이 미세한 진동과 같이 겹쳐져 이음줄과 음의 흐름들의 미친 듯한 소용돌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음표들을 불협화음으로 쌓아나가다 격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음표 간에 존재하는 미세한 우글거림과 긴장 에너지들을 가시화하는데 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악보들의 음표와 기호들은 엉켜진 실타래의 코들처럼 변별불가능하리 만큼 뭉쳐져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분산되고 분열된 음표들은 불규칙한 이음줄의 폭에 의해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있다.

> 평균율의 지층 안에서 모든 음은 조를 구성하는 형식(장/단조의 배열)으로 코드화되고 그 조의 근음(으뜸음)으로 영토화되지만, 그 근음을 제거하고, 온음/반음의 코드화된 배열을 12개의 반음들의 배열로 더욱 평균화하면,

---

6) 음악의 기초적 3요소로서의 리듬, 멜로디, 하모니: "리듬, 멜로디(선율), 하모니(화성)는 음악을 만드는 재료인 음을 만드는 기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즉 이러한 3요소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이 음악이다. 리듬은 박자, 음의 길고 짧음, 셈여림을 이어주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정해 준다. 멜로디는 선율적인 요소로 높이와 길이를 달리하는 음의 연속이다. 즉 높고 낮은 음을 이어서 리듬에 맞춘 것이다. 음악작품에 있어서 줄거리(주제)의 역할을 하며, 작곡가는 듣는 이의 귀가 음악을 좇아오도록 의도적으로 멜로디를 구성한다. 어떤 음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음을 쌓아 올린 것을 화음(code)이라고 하는데 이 화음은 높이가 다른 음을 동시에 소리낸다. 즉 수직적인 여러 음이 동시에 끝난다. 이런 수직적인 음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이 하모니, 즉 화성인데 멜로디의 역할을 받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멜로디의 한 예는 왼손에서는 화음을 오른손에서는 선율을 연주해 나가는 피아노 연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일반화된 반음계주의가 나타난다. 이는 조성의 지층을 벗어나는 평균율인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 상이한 조를 넘나드는 이행과 탈코드화, 탈영토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서양 음악에 공통된 동일한 구성요소다. 이를 새로운 배열의 형식으로 재코드화(12음 기법)하지 않고, 더욱더 추상화하면 '주파수'라는 단일한 파라미터로 표시되는 음악적 성분이 추상된다. 주파수는 음색에 대한 음향학적 추상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에, 음고의 지층에서 음색의 지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음악의 소리 자체의 새로운 정의가, 변환이 나타난다.[7]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악상은 "서양 클래식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을 형성하였던"[8] 정합적 조성체계[9]를 벗어나 다채롭고 이질적인 음표들과의 무한접속과 분절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기계(machine)[10]"라 할 수 있다. 이 "기계(machine)"는 이질적 음표들 간의 무한접속을 통한 불협화음의 생성과 더불어 "한 특정 으뜸음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기능 화성적 진행"을 파기[11]해버리는, 다각적 분절작용을 감행한다. 이 작용은 "모든 음이 제각기 순간순간 중심을 새로이 이루었다"[12]가 흩어지면서 진행되며 악보 위 음표들의 진동에 가까운 우글거림은 줄기식물인 리좀[13]과 같은 방식으로

---

7) 이진경, 『노마디즘 I』, 휴머니스트, 2002, 55.

8) 테너 조중혁 블로그, 20세기의 음악: 전쟁과 실험 4-무조 음악,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JUXr&fldid=4z17&datanum=611&openArticle=true&docid=JUXr4z1761120030422143045 참조.

9) 조중혁의 블로그, 조성체계란 "평균율적으로 조율된 12개의 음 가운데 7개의 음을 선택하여 음계를 이루고, 이들에 의한 화성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장, 단조"체계를 의미한다.

10) 들뢰즈와 가따리가 제시한 'machine'(기계) 개념은 다각적 요소들과의 무한 연결·접속 및 분절을 통해 유기적 시스템의 정합적 논리를 파괴하는 새로운 전략이다.

11) 조중혁 블로그, 20세기의 음악: 전쟁과 실험 4.

12) 조중혁 블로그, 쇤베르크의 <세 개의 피아노 소품(1909)> 분석 중,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JUXr&fldid=4z17&datanum=614&openArticle=true&docid=JUXr4z1761420030422023337 참조.

13) 윤지선, 「총체적 완결체에서 카오스적 군집체로의 이행전략」,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339~364. "다수에서 단 하나의 중심

증식되기에 본 연구자는 이것을 리좀-악상으로 분석해 내는 바이다. 이러한 부소티의 아방가르드한 리좀-악상은 도입부와 절정, 결말이라는 순차적 발전양식도, 주제적 선율이라는 중심축도 부재하게 한다. 나아가 음정과 리듬들의 강약변화와 셈여림 정도, 그것들의 속도감의 추이와 더불어 화음과 불협화음의 교차와 조우는 작곡행위라는 역동적 작업을 이끈다. 리좀-악상의 분열되고 분산된 음표와 리듬들의 교차와 증식은 분열된 다수의 그들이 내뱉는 호흡의 질주와 범람을 이끄는 역동적 분열방식으로서의 저술행위와 겹쳐진다. 리좀-악상적 작업으로서의 글쓰기는 내재적 속도와 리듬의 추이, 다양한 착상들의 질주와 충돌, 분열된 호흡들이 이루어내는 불협화음의 조성과 긴장감의 밀도의 변화를 통해 시시각각 중심을 이동·탈주·다각화되게 함으로써 일자적 저자라는 중심체마저 해체하고 만다.

III.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 지층화, 탈지층화, 질료

리좀-악상으로서의 글쓰기 방식을 채택한 들뢰즈와 가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을 일종의 지질학적 운동(mouvement géologique)으로 묘사하며 수사적 은유의 밀도를 농밀하게 높여나간다.

> 책은 대상도 주체도 없다. 그것은 다양하게 형성된 물질들과 날짜들, 매우 다양한 속도들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책을 한 주체의 것으로 부여하는 순간, 물질들의 작업과 그것들 간의 관계성의 외부성마저 무시하게 된다. 인간은 지질학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선한 신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다

수렴점으로 수직적으로 상승하며 나아가는 대신, 탈중심적이며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리좀적 조합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균열시킨다. 예를 들어 생성의 흐름에 있어 단일한 중심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수평적 줄기처럼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리좀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리좀의 열려있는 구조, 더 나아가 이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며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 들뢰즈에게 있어서 리좀은 기존의 시원적 뿌리중심의 사고와 수직적 사고방향에서 수평적이며 탈중심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 른 모든 것들에서처럼 책에서도 분절선들, 분할선들, 지층들, 영토성들이 있다. 하지만 또한 탈주선들, 탈영토화 운동, 탈지층화 운동도 있다. 이 선들을 따르는 각기 다른 흐름의 속도들로 인해 (책은)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엉겨붙거나 정반대로 빨라지거나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측정가능한 선들과 속도들, 이 모든 것은 배치(agencement)를 구성한다. 책은 이러한 배치이며 누군가의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체[14]이다.[15]

들뢰즈와 가따리는 책과 지질학적 세계라는 두 가지 상이한 요소들을 유사한 의미계열로 재배열·접속시킨 뒤 책이라는 세계의 형성과정을 지질학[16]적·지리학적 용어들과 연동시켜 설명해내고 있다. 책-세계의 생태적 특징들과 형성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의 역동적이며 변천적인 생성과정과 더불어 그것과는 대별되는 퇴적물들의 구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책-세계는 일종의 물질성의 차원을 획득하며 작가-주체 개인의 것으로 정박되는 대신 그것의 내재적 형성과정과 물리적 운동성에 주목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의미화라는 고정화된 뿌리를 찾는 정주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지역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 측량하고 지도

---

14) 이진경, 『노마디즘 I』, 58~59. “다양체(multiplicité)는 개체도,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도, 유기적 전체도, 추상적 존재도 아니다. 다양체는 질적으로 상이한 존재들이 접속, 일탈, 통합, 분지(分枝)를 통해 역동적으로 형성하는 장(場)이다. 다양체는 항구적 존재도 일시적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지속되기도 하지만 늘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때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예컨대 ‘야구경기’라는 다양체)

15)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9~10.

16) 지질학(geology), 『두산백과』 중: “지질학은 지각의 조성·성질·구조·역사·성인 등을 다룬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다양한 만큼 여러 분과로 나뉜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조직·구조·성인을 다루는 암석학,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성질·구조·생성을 연구하는 광물학, 퇴적암의 지층구조·성인·형성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퇴적학 등이 있다. 또한 지각 내부의 지질구조를 밝혀, 그 형성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구조지질학, 해저의 지질현상을 다루는 해양지질학 분야도 있다. 지층의 분포와 상하관계를 밝히는 층서학(層序學)은 지층 중의 화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고생물학과 더불어 지각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사학(地史學)의 한 분과를 이룬다.”

화해 나가는,[17] 열려있는 유목민적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의 운행속도와 변곡점, 유동적 요소들이 글쓰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명시한 바대로 은유(métaphore)는 한 단어를 유사한 의미계열의 축을 지닌 다른 단어로 비약적으로 대체하여 그것의 의미의 층위를 끊임없이 이동·확장·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필자는 들뢰즈와 가따리의『천개의 고원』의 용어들을 일종의 수사적 은유이자 새로운 철학적 개념생성전략으로 분석하는 바이다. 안토니올리 마놀라(A. Manola)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지리철학(géophilosophie)에 대한 연구 선행자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영토, 영토들, 경계들, 공간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철학적 담론의 진리를 수사적 은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유를 물리적, 정치적, 미학적 지리학, 동물행동학과 지질학들과 다각적으로 조우하게 함으로써 개념의 경계들을 급진적으로 재사유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다.[18]

이처럼 들뢰즈와 가따리의『천 개의 고원』의 용어들은 각기 다른 분야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각적, 이질적 요소들을 자유연상을 통해 유사한 의미계열 안으로 무한접속·연결시킴으로서, 기존의 의미망을 파기하고 탈주시키는 새로운 개념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천 개의 고원』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펼쳐지는 수사적 은유장치를 통해 단일한 분야의 정합적, 유기적이며 경계가 닫혀있는 시스템논리로부터 벗어나, 상이한 분야들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허물며 이질적 요소들끼리의 무한접속

---

17)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9~10. "Écrire n'a rien à voir avec signifier, mais avec arpenter, cartographier, même des contrées à venir."

18) M. Antonioli, "Singularités cartographiques", *Trahir*, 2010/08, 2. "Penser la terre et les territoires, les frontières et les espaces ne signifie pas ici illustrer par des métaphores la prétendue vérité du discours philosophique, mais s'efforcer de repenser radicalement les frontières du concept à partir de multiples rencontres entre la pensée et la géographie physique, politique, esthétique, voire avec l'éthologie et la géologie."

과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생성시키는, 일종의 역동적 '개념-기계(machine à concept)'로 분석하는 바이다. 이로써 들뢰즈와 가따리는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철학적 논증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철학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그들이 직관적으로 자유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리좀처럼 얽어내며 그로부터 새로운 개념들을 파생시키는 '이미지-개념(image-concept)' 기법을 통해 저술하고 있다고 고찰한다. 예를 들어『천 개의 고원』에서 "매끄러운 공간과 홈 패인 공간"이라는 상반되는 공간이미지는 이로부터 촉발되어 나오는 다채로운 연상 이미지들을 지리적, 정치적, 예술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가며 논의를 풍성하고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한다. 그들에 의하면 "매끄러운 공간"에는 '조각보 패치워크'와 같이 고정된 방향성이나 정형으로서의 씨실과 날실이라는 일체의 규칙적 교차가 부재하는, 다채롭고 열린 조우와 유연하고 비정형적 연합이 일어난다. 나아가 음악 모델 안에서의 매끄러운 공간에서는 연속적인 변주와 정합적 조성체계를 벗어난 불협화음의 질주가 드러나기도 한다. 바다나 사막 역시 유동적 흐름이 주름과 같이 미끄러지듯 펼쳐지는, 수평적이며 무정형의 매끄러운 공간이라 할 수 있다.[19] 이렇듯 하나의 공간 이미지로부터 촉발된 수많은 연상 이미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좀처럼 증식되며 일련의 의미계열 안으로 우연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얽혀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나 사막으로부터, 조각보와 불협화음의 현대음악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상이한 이미지들이 공명해내는 다양한 결들을 읽어내고 횡단하는 것이 바로 들뢰즈와 가따리의 '개념'이며, 이는 이미지들로부터 개념들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리적 논증구조를 통해 도출되는 추상적이며 보편적 개념과는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분석한 그들의 "이미지-개념"에서는 이미지와 개념들 간의 상하 위계적 질서도, 정합적 체계도 부재하며 서로가 서로를 산출해 내는 수평적이며 리좀적인 연계가능성이 고찰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전략적 텍스트인『천 개의 고원』의 수사적 은유의 용어들-분절, 지층, 탈지층화, 배치 등-을 지질학 전문

---

19)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92~602.

용어의 논의틀과 연계지어 분석하여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각적 분야들의 경계를 넘어서며 의미의 스펙트럼을 증폭, 상호 촉발시키는지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들뢰즈와 가따리는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에서 '지구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단, '도덕의 지질학(géologie de la morale)'의 고원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 앞서 밝힌 대로 필자는 이 챕터의 텍스트를 지질학 전문용어의 논의틀과 면밀히 비교·연계시켜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철학적 작업이 어떤 의미에서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과 수사적 은유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양산하고 있는 효과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의미 스펙트럼의 비균질한 상호작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천 개의 고원』의 '도덕의 지질학' 텍스트 분석방법은 '지층과 탈지층, 질료' 등과 같은 지구의 내부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의 균질도와 파동을 탐색하는 지질학적 시추작업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다음과 같이 면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두 철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들에 지질학에서의 지구내부 구조도식을 구체적으로 대응, 연계 도입시켜 의미의 스펙트럼의 풍부화, 창조적 재해석, 나아가 그것이 수사적 은유장치를 넘어선 이질적 두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연접을 통한 개념 생성이 가능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천 개의 고원』에서 지구는 본래 "아직 형식을 부여받지 않은 불안정한 질료들이자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들이며 자유로운 강렬함들[20][...]"이다. 들뢰즈와 가따리의 텍스트를 지질학적 차원과 연계시켜 분석해 본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들이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질료들'의 자유롭고 유동적 흐름의 상태는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지구내부 구조도식에서의 지질학적 맨틀(a)[21], 즉 지구의 핵과 지각 사이에 존재하는 고온의 고체성 유동물질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질료를 조성의 판(plan de consistance)[22]/점성판 또는 기관없는 몸체

---

20)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21) 맨틀 (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는 지구의 내부 구조 도식을 다음 페이지(8)에 삽입하였다.

> (Corps sans Organes)라고 부른다. 즉 형식을 부여받지 않았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지층화되지 않거나 탈지층화된 몸체이다. 또한 그런 몸체 위를 흘러가는 모든 것, 다시 말해 분자나 원자 아래의 입자들, 순수한 강렬함들, 물질이나 생명이 되기 이전 상태의 자유로운 독자성들이.[23]

지질학에서 지각으로 각화되기 이전이자 지층으로 분절되기 이전의 상태를 맨틀과 같은 고체성 유동물질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것으로부터 불안정하지만 강렬하고 자유롭게 유동하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질료(matière)" 개념이 착안되어지는 것으로 고찰하는 바이다. 따라서 질료는 맨틀 대류현상(b)와 같이 끊임없이 유동·순환하며 각화되지 않을 뿐더러 분자나 원자, 물질이나 생명, 유기체 등과 같은 일체의 분절단위에 의해 각인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층(strate)은 맨틀이 각화된 암석층으로 "땅이 일정한 층상을 이루면서 분절[24]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따리는 이것들을 "층들이자 띠들로, 자신의 영역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포획하고 부여잡으려는 블랙홀과 같다[25]"고 기술한다. 즉 지층

---

22) 각자의 프리즘을 통해 들뢰즈와 가따리의 이론의 방점을 드러내려하는, 여러 국내 번역자들에 의해 '일관성의 구도, 고른판, 혼효면'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plan de consistance"를 왜 조성의 판으로 번역하고 점성판이란 새 개념을 도입하였는지 이어지는 본론에서 차근차근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논의를 지질학적 차원과 연동시켜 숙고해 본 뒤, plan de consistance 개념에 대한 번역을 이 논의의 맥락 안에서 면밀히 재조명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23)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8. "On appelait matière le plan de consistance ou le Corps sans Organes, c'est- à-dire le coprs non formé, non organisé, non stratifié, ou d stratifié, et tout ce qui coulait sur un tel corps, particules submoléculaires et subatomiques, intensités pures, singularités libres pré-physiques et prévitales."

24) 이진경, 『노마디즘 I』, 179. "분절(articulation)은 어떤 질료의 흐름을 기본적인 구성단위, 즉 실체(substance)로 분할하고 그것들을 규칙에 따라서 결합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있어서 "실체(substance)란 단지 형식화된 질료일 뿐 무언가의 근저에 있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형식화된 질료로서의 실체는 영토성, 영토화 및 탈영토화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화란 유동적이며 미규정적 질료들의 흐름을 분절단위들로 끊어내고 위계적으로 조직화·재배열하여 유의미한 의미망 안에 포착, 한정지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층화 작용이 일어나는 표면은 두 층들(couches) 사이에서 더욱 조밀해진 조성의 판(plan de consistance)/점성판으로 이루어져 있다.》층들은 지층들 그 자체이다. 층들은 적어도 두 개로 이뤄져 있으며 한 층은 다른 지층의 밑지층 역할을 한다. 지층화 작용의 표면은 지층들과는 구별되는 기계적 배치이다. 배치는 두 층, 두 지층 사이에 있기에 층들을 향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에서 사이층이다), 기관 없는 신체 또는 조성의 판/점성판이라는 다른 측면을 향해서도 있다(이것은 메타층이다). 실제로 기관 없는 몸체 그 자체가 층들의 층위에서 조밀해 지거나 농밀해지는 조성의 판/점성판을 형성한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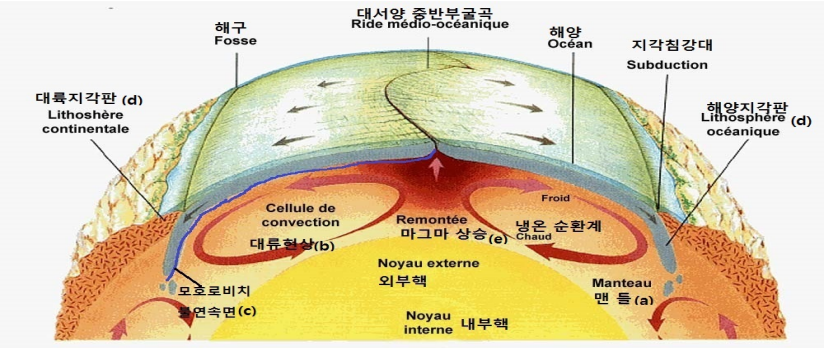
들뢰즈와 가따리는 지층화되기 이전의 상태, 분절화나 유기체적 조직화가 일어나지 않은 유동성의 질료상태를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라 부른다. 여기서 '기관 없는 신체'는 유기적이고 정합적 시스템 논리 아래 기능주의적 기관들로 분절되고 코드화, 위계화되는 것을 거부한 개념이다. 이러한 "기관 없는 신체인 지구를 일정한 형태로 고정하거나 일정한 코드에 따라 분할해 포착하는 것이 지층화, 분절"[27]인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지질학에서의 지구의 구조 도식과 인용 텍스트를 연결지어 분석해 봄으로써, 철학과 지질학의 경계를 조각보 패치워크처럼 창조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잇고 '도덕의 지질학'에 대한 재해석의 스펙트럼을 보다 증폭시키고자 한다. 우선 '지층화'라는 분절 작용이 촉발되는 지점을 지구 내부구조 도식 내 어디로 위치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이를 유동적 맨틀(a)와 각화된 지각판(d)가 접하는 경계표면, 즉 모호로비치 불연속면(c)로 해석하는 바이다. 이 경계표면 위 두 개의 층위-맨틀과 지각판-에서 '기계적 배치'의 각각 상이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에 들뢰즈와 가따리는 주목한다. 그들에 의하면, 능동적 의미에서의 '기계적 배치'란 이질적이고 다양한 요소들과의

---

25)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26)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27) 이진경,『노마디즘 I』, 183.



무한연결과 접속·변주를 감행하는 새로운 관계망의 장(場)인 것이다. 『천 개의 고원』에서 기계적 배치는 두 가지 상이한 방향성과 효과를 가진 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차원에서 가동된다: "생물학적-신체적 차원, 무의식적-구조주의적 차원, 의식적-사회적 차원."[28] 필자가 보기에는 모호로비치 불연속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배치는 각화된 지각판(d)을 접한 지점에서는 분절작용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유동적 맨틀(a)[29]"을 접한 지점에서는 탈지층화작용을 촉진시킨다. 이는 경계가 가르고 있는 상이한 층위들의 밀도와 운동성, 파동에 따라 기계적 배치작용이 상호 다각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일어나기에 그것의 효과 또한 능동적/수동적으로 다채롭게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명시한 세 가지 차원에서 가동되는 기계적 배치의 이중효과-지층화작용과 탈지층화작용-에 대해 지구 내부도식의 구체적 층위들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각화된 지각판(tectoniques des plaques)(d)에서는 분절단위를 각인시키고 퇴적, 습곡작용[30]을 파생시키는 '지층화 작용(stratification)'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수동적인 기계적 배치가 지질학적 차원을 넘어서 생물학적-신체적 차원, 무의식적-구조주의적 차원, 의식적-사회적 차원이라는 상이한 차원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증폭될 때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유기체'로 조직화

---

28)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29) "유동적 맨틀" 개념은 필자가 분석한 개념으로 지질학적 차원에서 탈지층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일컫는다.

30) 지각이 쌓이고(퇴적) 휘거나 변형되는 작용(습곡)을 일컫는다.

되고 '기표'라는 언어구조에 정박해야 하며 '나'라는 주체화작용에 종속되게 된다. 반면에 필자가 제시하는 고체성 유동물질, 맨틀로 이루어진 조성의 판(plan de consistance)/점성판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정하지만 강렬하게 순환·이동하는 맨틀대류현상(b)을 통한 '탈지층화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능동적 기계적 배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탈지층화 운동은 우리를 유기체적 논리에서 벗어난 기관 없는 신체가 되게 하며 기표적 언어구조에서 벗어나 주체화로 정박되지 않는 역량들의 강도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31] 이렇듯 들뢰즈와 가따리가 벌이고 있는 철학적 시추 작업은 '기관 없는 신체'인 지구의 내부 층위에서 일어나는 '지층화와 탈지층화 작용'을 지질학적 차원에서 심리 의식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확대, 증폭시킴으로써 그것의 다양한 효과와 기제를 분석하는 수직적 탐사였다고 필자는 고찰한다. 더 나아가 지질학에서의 지구의 구조 도식과 인용 텍스트의 면밀한 연계 분석은 철학과 지질학의 경계를 무위계적이며 우연적인 조각보 패치워크처럼 자유자재로 교차, 접속시키는 것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의미망과 경계를 파기, 탈각하고 새로운 개념 생성가능성을 여는 '기관 없는 신체'의 실천적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제『천 개의 고원』에서 제시된 "plan de consistance" 개념을 정교하면서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판에서 판으로 이행하는 수평적 탐사를 기획하고자 한다.

IV. **수평적 미끄러짐**: "plan de consistance", **조성의 판에서 점성판으로**

우리는『천 개의 고원』에서 나오는 "Plan de consistance"가 지니는 의미

31)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10; "기계적 배치는 그것을 일종의 유기체로, 또는 기표적 총체로, 또는 한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층들에로 향하게 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유기체를 해체시키고, 탈기표적 입자들, 순수 강도들을 통과시키고 순환케 하며, 주체에게 하나의 강도의 흔적으로서 이름만을 남기게 만드는 기관 없는 신체로 향하게 하기도 한다."

의 스펙트럼을 보다 세심하게 정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다수의 해석용어들은 오히려 “plan de consistance”의 의미의 파장(波長)을 산란시키고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관성의 구도’(이진경, 2002), ‘고른판’(김재인, 2001), ‘혼효면’(이정우, 2008a) 등으로 해석된 plan de consistance는 이때껏 그 의미의 결이 들뢰즈와 가따리의 텍스트를 밝히는 데 그리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자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plan de consistance”라는 용어의 재해석을 통해 그들의 텍스트를 보다 정교히 밝히고자 한다.

판에서 판으로의 수평적 미끄러짐과 그 이행은 지질구조의 수직적 시추작업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들뢰즈는 Logique du sens(의미의 논리)에서 ‘앨리스의 모험’이 땅굴과 우물, 땅의 심층부를 향해 파고드는 여정이었다가 점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수평적 여정으로 변모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32] 우리는 본론에서 들뢰즈와 가따리의 “plan de consistance”를 그들의 텍스트에 의거하여 재해석하고 논증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들뢰즈가 파리-뱅센느(Université Paris-Vincennes, 현재의 파리 8대학의 전신) 대학에서 한 강의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plan de consistance가 갖는 의미의 결을 보다 정교하고 명확히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 요소(구성재료)들의 접속과 위치의 변동이 기계적 배치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계적 배치들(agencements machiniques)의 공통점은 모든 것들은 각자의 역량의 정도에 따라 ‘조성의 판(plan de consistance)’을 실행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의 판(plan de composition) 또는 조성의 판(plan de consistance)들과 기계적 배치들 사이의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첫 번째 관계성이 있다: 기계적 배치들은 각각의 배치에서 요소(재료)들의 접속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의 판을 실행시킨다.”(C’était la variation des positions et des connexions des matériaux qui constituaient les agencements dits machiniques, agencements machiniques dont le point commun était que tous réalisaient le plan de consistance suivant tel ou tel degré de puissance.

32) G. Deleuze, *Logique du sens*, Paris, 1969, 19~20.

> Donc on a un premier lien très marqué entre le plan de composition ou de consistance et les agencements machiniques qui réalisaient ce plan à des titres divers, suivant la position et les connexions des matériaux dans chaque agencement.)[33]

제시된 텍스트에 의거하여 보자면, “Plan de consistance”는 “기계적 배치(agencements machiniques)”라는 다양하고 이질적 요소들 간의 접속과 연결, 그것을 통한 상관적 위치성과 유동적 배열망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일관성의 구도’, ‘고른판’, ‘혼효면’과 같은 기존의 해석용어들은 ‘기계적 배치’와의 맥락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가 plan de consistance를 plan de composition(구성의 판)과 대체·병렬 가능한 것으로 기술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구성의 판 또는 조성의 판들(plan de composition ou de consistance)과 기계적 배치들 사이에서의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첫 번째 관계성이 있다.”

> (유기체적) 조직화의 판 혹은 (발전적) 전개의 판은 지층화(stratification)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형식들과 주체들, 유기체적 기관들과 기능들은《지층(strate)》혹은 지층들 간의 관계이다. 이와는 반대로, 내재성의 판, 조성의 판 혹은 구성의 판(le plan de consistance ou de composition)은 모든 자연의 탈지층화를 일으키는데 여기에는 가장 인공적인 수단들에 의한 탈지층화도 포함된다.[34]

“Plan de consistance”의 용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를

---

33) G. Deleuze, *Cours Vincennes, Anti-œdipe et Mille plateaux*, 1974/01/21.(필자의 번역)

34) Deleuze/Guattari, *Milles plateaux*, 330; “C’est que le plan d’organisation et de développement couvre effectivement ce que nous appelons stratification: les formes et les sujets, les organes et les fonctions sont des ‘strates’ ou des rapports entre strates. Au contraire, le plan comme plan d'immanence, consistance ou composition, impliquent une déstratification de tout la Nature, y compris par les moyens les plus artificiels.”(필자의 번역)

구성하는 consistance를 “con-sister”라는 동사로부터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동사 consister는 어원적으로 접두어 cum(intensif 강렬하게, 집약적으로)+동사 sistere(se tenir, ~을 지니다)[35]로, ‘~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지니며 ‘se composer, ~로 구성되다’와 유의어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consistance는 composition과 상호대체가 가능한 유사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기계적 배치의 맥락에서 이러한 ‘구성(composition)’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이는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 간의 무한접속과 연결을 통한 얼개의 직조, 조성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 국내 번역자들에 의해 Plan de consistance는 ‘일관성의 구도, 고른판, 혼효면’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consistance”의 명사적 의미의 한정된 영역[36]에만 머무른 채 기계적 배치로서의 구성과 조성의 측면을 온전히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인다.

필자는 기계적 배치가 일어나는 ‘조성의 판’인 들뢰즈와 가따리의 “plan de consistance”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개념을 역동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조성(consistance, composition)'이란 의미를 화학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탐구하고자 한다. 화학용어로서의 구성과 조성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의 양의 비율[37]’을 뜻하는데,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고 결합, 상응하며 이루어내는 배치상태로서의 물질의 밀도, 점도, 점성으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Consistance의 명사형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물질이나 액체·진흙 따위가 응집되고 유동적으로 결

---

35) consister의 뜻, 두산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36) consistance, 두산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중

1. (액체의) 농도,(진흙 따위의) 점도 (= cohésion)
2. [비유] 확고함, 확실함, 꿋꿋함,일관성, 견실함,[옛] 신용 (= fermeté, stabilité, crédité)
3. [논리] (이론의) 무모순성, 정합성(整合性)
4. [심리] 일관성
5. [토목] (콘크리트·토질 따위의) 점착력
6. [법] (유산 따위의) 구성,(부동산의) 면적

37) ‘조성’의 의미, 국립국어원.

집되는 정도로서의 농도, 점도, 밀도의 뜻이 드러난다.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점도-유연성'(visco-plasticit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성성분들 간의 결합을 도와주는 끈적끈적한 점성의 응집력뿐만 아니라 형태나 비율이 유동적으로 변환 가능한 유연성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점도-유연성이 갖추고 있는 점성의 응집력으로서의 cohésion은 요소들을 함께 결집시키고 엮어내는 연대성이긴 하지만 이들 사이를 관통하는 일관된 통일성의 논가는 부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유연하게 재조합되고 풀어헤쳐질 수 있도록 헐겁게 얽혀있기에 이것들을 정합적 규칙에 의해 분절시키고 하나의 전체(tout)로 종합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제안하는 '점도-유연성, 즉 점성의 판'으로서의 plan de consistance의 새로운 차원이 지니는 강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plan de consistance에서 plan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필자는 plan을 다각적 배치가 일어나는 역동적 장(場)으로서의 '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 판(plan)은 평평한 평면의 차원의 공간으로, 수직적 위계질서가 각인되지 않은, 들뢰즈와 가따리의 "고원(plateaux)" 개념과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필자가 보기에 이는 '바둑판, 체스판[38]과 같이 반반한 표면 위 놀이나 게임이 이루어지는 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놀이(게임)는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적이며 다각적 배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가. 더 나아가 이 판을 지질학적 차원에서의 판인 '지구의 겉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유동적 판'[39]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필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점성판' 개념의 단초로 활용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조성의 판으로서의 Plan de consistance는 '조직화의 판(plan d'organisation)'이나 '전개의 판(plan de développement)'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조직화의 판'이란 유기체적 논리로 위계화하며 배열되는 공간이며 '전개의 판'은 진화의 이념을 구현해내는 발전적 상태를 전제한 공간이다. 이에 반해 조성의 판은 선험적이며 위계적인 질서도, 목적(finalité)도 부재한 판이다. 따라서 필자는 판이

38) '판'의 의미, 국립국어원.

39)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라는 수평적 관계의 차원에서 구성요소들의 무한결합, 접속, 배치가 가동되는 일련의 조합-응집 게임(jeu de combinaison-cohésion)으로 분석하는 바이다. 이것은 다각적이며 한시적인 조합과 유동적 응집성을 지닌 채 가동되기에 우연성의 장에 항시 열려있다고 고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의 '도덕의 지질학' 텍스트로 돌아가서 "plan de consistance"에 대한 분석의 날을 한층 더 정련해 보고자 한다.

> 실제로 기관 없는 몸체 그 자체가 층들의 층위에서 조밀해지거나 농밀해지는 점성판을 형성한다.(En effet, le corps sans organes formait lui-mme le plan de consistance, qui devenait compact ou s'epaississait au niveau des strates.)"[40]

필자는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여기에서 보면 "plan de consistance"가 "조밀해지거나 농밀해 진다"고 하였는데, 조밀도와 농밀도라는 표현은 물질의 농도와 점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의 '고른판, 일관성의 구도, 혼효면' 등과 같은 번역어로는 이것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 들뢰즈와 가따리의 논의의 틀을 지질학적 차원과 연동시켜 볼 때 plan de consistance에 관한 우리의 이해 또한 더욱 첨예해 질 수 있다고 본다.

> 우리는 질료를 점성판 또는 기관 없는 몸체라고 부른다. 즉 형식을 부여받지 않았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지층화되지 않거나 탈지층화된 몸체이다.(On appelait matière le plan de consistance ou le Corps sans Organes, c'est- à-dire le coprs non formé, non organisé, non stratifié, ou d stratifié.)"[41]

그렇다면 형태가 부여되지 않은 채 강렬하고 자유롭게 유동하는 '질료(matière)'들이 형성하는 판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필자는 지질학적 차원에서 탈지층화작용이 일어나는 맨틀을 '기관 없는 신체-질료'가 형성하

---

40)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4.

41)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58.

는 유동성의 판인 plan de consistance, 즉 점성판이라고 분석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고온의 고체성 유동물질인 맨틀은 consistance인 찰지고 끈끈한 점성(粘性)물질로서 끈적하게 들러붙음(viscosité)과 유동성(fluidité)의 성질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필자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조성의 판, plan de consistance에 지질학적 차원을 연동시켜 상이한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고 의미의 축을 자유자재로 이동, 변환시킴으로서 '점성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맨틀은 탈지층화 운동이라는 능동적인 기계적 배치가 일어나는, 조성의 장이자 다각적이고 유연한 조합-응집 게임(jeu de combinaison-cohésion)이 실행되는 점성판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성의 판이 점성판으로 수평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점성판은 견밀도라는 단단하고 견고한 결집성과는 대별된다. 본 연구자는 펼쳐졌다 사라지고 다시 엮어지는 새로운 관계망으로서의 조성의 판은 역동적 응집력과 탄력적인 점도-유연성(visco-plasticité)으로 추동되는 점성판을 통해 탈지층화 운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계적 배치의 장으로서의 조성의 판은 탈지층화 운동을 강화시키는 점성판을 향해 수평적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이로서 이 점성판은 유기적으로 조직되거나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지층화 작용의 판인 지각판(d)(tectonique des plaques)과는 대별되게 된다. 들뢰즈와 가따리에 의하면 이 "plan de consistance는 유기체적 조직의 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멈추질 않으며 입자들을 지층 밖으로 탈주시키고 빠름과 느림의 속도감을 통해 형태들을 교란시키며, 배치와 미시적 배치들을 통해 기능들을 깨부수는 것이다."[42] 따라서 이 plan de consistance는 맨틀대류현상과 같이 역동적 흐름에 끊임없이 휩쓸려 나아가는 입자들의 속도감과 강도가 지배하는 탈지층화 운동의 장이자 유동성의 장인 점성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42) Deleuze/Guattari, *Mille plateaux*, 330. "Et, inversement, le plan de consistance ne cesse pas de s'extraire du plan d'organisation, de faire filer des particules hors strates, de brouiller les formes à coup de vitesses ou de lenteur, de casser les fonctions à force d'agencements, de micro-agencements."

V. 나가기

필자는 본 논문에서『천 개의 고원』의 서문을 열고 있는 부소티의 악상과 저술행위라는 역동적 분열방식을 연결시켜 분석해 보았다. 악보 위 음표들의 진동에 가까운 엉킴은 줄기식물인 리좀과 같이 그 어떠한 중심축도 주제적 멜로디도 부재한 채 증식되어 나가기에 필자는 이것을 리좀-악상이라고 분석하는 바이다. 리좀-악상적 작업으로서의 글쓰기는 분열된 다수들이 내뱉는 호흡과 리듬들이 범람하고 교차하는 역동적 분열방식이기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심의 이동과 탈주를 통해 '일자적 저자'라는 신화마저 파기시켜 버린다.

나아가 필자는 지질학에서의 지구의 구조 도식과 들뢰즈와 가따리의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의 '도덕의 지질학(géologie de la morale)' 텍스트를 연결지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층화라는 분절 작용이 촉발되는 지점을 맨틀과 지각이 접하는 경계표면, 즉 모호로비치 불연속면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기계적 배치는 이 경계표면에서 일어나는데, 지각층에서는 분절화와 지층화가 가속되는 반면, "유동적 맨틀"에서는 탈지층화작용이 일어난다. 들뢰즈와 가따리에 의하면 지층화 작용을 통해 우리는 '유기체'로 조직화되고 '기표'라는 언어구조에 정박해야 하며 '나'라는 주체화작용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탈지층화 운동을 통해 우리를 유기체적 논리에서 벗어난 기관 없는 신체가 되게 하며 기표적 언어구조에서 벗어나 주체화로 정박되지 않는 역량들의 강도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지질학에서의 지구의 구조 도식과『천개의 고원』텍스트와의 연동 분석은 철학과 지질학의 경계를 조각보 패치워크처럼 무위계적이며 우연적으로 교차, 접속시키는 것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의미망과 경계를 탈각하고 새로운 개념 생성가능성을 꾀하는 '기관 없는 신체'의 실천적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Plan de consistance, 조성의 판에서 점성판으로의 해석을 통해 철학이라는 지질구조의 수직적 시추작업을 넘어서 수평적 미끄러짐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Consistance를 con-sister라는 동사로부터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지니며 'se composer,

~로 구성되다'와 유의어 관계에 있다. 들뢰즈가 'plan de consistance'(조성의 판)를 'plan de composition'(구성의 판)과 상호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성과 조성이란 다양한 요소들 간의 무한접속을 통해 얼개를 짜고 그것들의 배치를 다각화하는 것을 뜻한다. '일관성의 구도, 고른판, 혼효면'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Plan de consistance의 한계점은 "consistance"의 명사적 의미의 한정된 해석틀에만 머무른 채 '기계적 배치'로서의 구성과 조성의 측면을 온전히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필자는 plan을 기계적 배치가 일어나는 역동적 장(場)으로서의 '판'이자 위계적 질서가 기입되지 않은 평평한 평면의 차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필자가 해석하는 plan de consistance라는 '조성의 판'은 선험적 질서도, 목적(finalité)도 부재하기에, 유기체적 조직화의 판이나 발전적 전개의 판과 대비된다. 필자는 우연히 사라지고 다시 엮이는 새로운 관계망으로서의 조성의 판은 일련의 조합-응집 게임(jeu de combinaison-cohésion)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자는 들뢰즈와 가따리가 제시하고 있는 조성의 판인 plan de consistance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Consistance의 명사형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물질이나 액체·진흙 따위가 응집되고 결집되는 정도로서의 농도, 점도의 뜻이 드러나는데, 필자는 이러한 점성의 내밀한 응집력과 변환가능성으로서의 유연성인 '점도-유연성'(visco-plasticité)에 주목한다. Plan de consistance에 지질학적 차원을 연동시켜 분석함으로써 탈지층화 운동이라는 능동적인 기계적 배치가 일어나는 '조성의 장'에서, 역동적으로 결집했다가도 유연하게 변환, 유동 가능한 맨틀과 같은 '점성판'으로의 수평적 이행을 새롭게 제안하는 바이다.

위에서 논증한 대로 들뢰즈와 가따리는 기존의 용어를 유사한 이미지들을 공명시키는 다른 분야의 용어로 대체하여 그 의미의 층위를 이동, 확장, 변주한다는 점에서 수사적 은유를 실행한다. 더 나아가『천 개의 고원』은 상이한 분야들의 용어들을 접속, 연결시켜 기존의 의미망을 파기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산출해 낸다는 점에서 역동적 '개념-기계'(machine à concept)이다.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들뢰즈와 가따리는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리좀처럼 얽어내고 그로부터 새로운 개념들을 파생시키는

‘이미지-개념’(image-concept) 기법을 통해 저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개념에는 전자와 후자 사이의 그 어떠한 위계성이나 목적의식이 부재하며 상호 간에 끊임없는 촉발과 자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평적이며 열려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위계적 철학 논증구조로부터 벗어난, 이미지-개념기법을 통해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철학’은 끊임없이 수직적 시추작업과 수평적 미끄러짐을 동시에 감행하며 상이한 분야의 경계를 탈각하고 넘어서며 창조적인 개념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적 은유나 이미지-개념 기법은 종단적, 횡단적 탐사를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이진경,『노마디즘 I』, 휴머니스트, 2002.

윤지선,「총체적 완결체에서 카오스적 군집체로의 이행전략」,『시대와 철학』, 제25권, 제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339~364.

Antonioli, M., “Singularités cartographique”, *Trahir*, 2010.

Conry, S., “Spatialité des frontières: géophilosophie d’après Michel Foucault et Gilles Deleuze”, *Philosophy,* Université de Bourgogne, Dijon, 2012.

Deleuze, G./Guattari, F., *Mille plateaux,* Paris, 1980.

Deleuze, G., *Logique du sens, Editions des Minuits*, Paris, 1969.

_____, *Cours Vincennes, Anti-œdipe et Mille plateaux*, Paris, 1974.

Bacry, P., *Les Figures de style*, Paris/Belin, 1992.

<Abstract>

Analysis of the Terminology of Deleuze and Guattari's Thousand Plate:
Philosophy as an Exploration of Geological Space

Yun Ji-Sun
(Ulsan Univ.)

Through this thesis we will analyze the terminology of Deleuze and Guattari's Thousand plates, which touches until botany, geology and geography. And we will regard it as a metaphor rhetoric. We will reflect on their strategy which consists to create a new philosophical concept by widening the level of the meaning of terms on the different spheres through the metaphor rhetoric. We will analyze the concept of "stratification and destratification and matter" which was used by Deleuze and Guattari. And we will discuss the philosophy as an exploration of geological space. We will compare intensely the geological structure of the Earth with the terms of <the geology of the moral> of Thousand plates; and we will interpret newly "plan de consistance(the plan of consistency)", and from that, propose "the plate of visco-plasticity(plan de visco-plasticité."

Key words: Rhizome, Stratification, Destratification, Plan de Consistance, Metaphor Rhetori